

소
식

대한양계협회

잉여계사 활용대책 건의에 대한 회신 —잉여계사 제한적 허용 움직임—

본회에서는 양계산물 가격의 안정방법의 하나로 사육수수 감축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이에 따라 잉여계사의 발 생활용대책을 마련키 위해 지난 6월17일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현행 건축법상에는 양계사라 할지라도 공장용이나 기타 건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기타 부수적인 법률의 제약으로 계사의 용도변경이 난하여 사육수수 감축에 장해요인이 되고있는 바 사육수수 감축에 따른 잉여계사를 방치하시 시세가 약간 회복되면 재입식할 우려가 있어 생산조절에 실효를 거둘 수 없을뿐 아니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설치한 계사를 무조건 비워둘수만도 없는 실정이오니 생산조절을 위한 사육수수 감축에 따른 잉여 계사(비워 있는 계사로 간이 계사는 제외)를 공장용 건물등(배출시설을 하지 않은 경공업 및 수공업 공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 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서에 대하여 농림수산부는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효과를 증대시키고 잉여축사인 기존시설의 효과적인 이용

차원에서 공장용 등 타용도로 변경이 가능토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건설부장관에게 이첩하였는데 이에 대해 건설부장관이 지난 7월4일 본회로 회신을 보내왔다.

—회신내용—

1.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 전역)의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억제와 가능한 선별적 분산으로 국토의 균형개발을 유도하고자 제정된 법으로서 수도권 전역을 5개 권역으로 구분 지정하여 각 권역별로 특성에 맞게 정비를 하고 있는 바,

2. 귀 협회에서 건의한 잉여계사의 공장으로 용도변경은 새로운 인구 집중유발시설의 설치에 해당되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각 권역별로 제한적 허용을 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인구집중유발 등을 규제대상이 되나 주민생활관련 공장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탄원서 제출 —본회를 위시한 3개 생산단체 공동—

정부의 위법건축물 일체단속으로 인하여 영세한 대부분의 축산농민들이 불안한 가운데 축산업을 하고 있어 축산물수급에 차질이 없고 양축농민의 생업유지 선치를 위해 지난 7월5일 본회 및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가 공동으로 대통령, 내무부장관, 건설부장관, 각 정당 총재에게 각각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최근 배합사료가격의 인상과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때에 양축농민의 96.1%가 영세한 양축가로서 까다로운 농지관계법·산림관계법 등의 절차를 밟아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축사 90%정도가 무허가 축사로 선량한 양축농민의 대부분이 범법자라는 죄책감 속에서 생업을 해 오고 있으므로 87년도 말 이전에 건축한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양성화 조치를 취해 양축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편안한 가운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업종별 협동조합에 대한 질의 회신

~동일지역내 별도 조합설립 가능~

본회가 지난 6월14일 농림수산부에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질의 및 건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회신을 7월11일자로 보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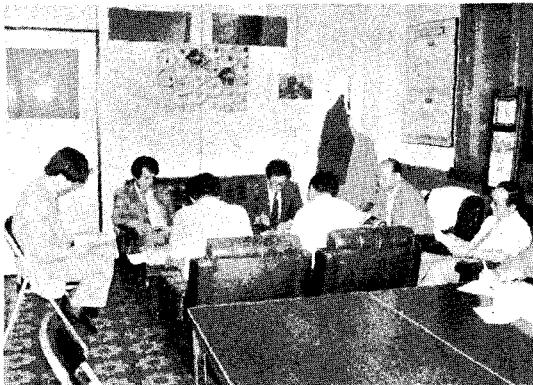
질의 및 회신

| 질의 | 회신 |
|---|---|
| 1. 현행 축협법상 채란업과 육 계업을 별개 의 업종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동일 업종으로 보 는지의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축산업협동조합법상 축산업의 범위에 산란업과 육계업을 별개의 업종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육계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만 업종조합원의 자격에 양계업은 산란계 5천수 또는 육계 1만수 이상을 사육하는 자로 되어 있으나 ○ 산란업과 육계업은 생산물이 서로 다르고 품종 자체가 상이함은 물론 성장속도, 사료급여 방법 등 사양관리 절차도 틀리고 육계업은 1-2개월내 자본회전이 가능하나 산란업은 최소 6개월이후라야 자본회전이 가능하는 등 생산에서부터 유통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구조특성이 서로 다른점과 전문화 추세를 감안할 때 동일업종으로는 볼 수 없음. |
| 2. 양계업협동조 합이 아닌 채 란업 또는 육 계업 협동조 합명칭을 사 용할 수 있는 지 여부와 동 일지역(경제 권) 내에 채 란업 및 육계 업 협동조합 을 별도로 설 립할 수 있는 지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법상으로는 산란업 또는 육계업협동조합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추후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정되어 산란업과 육계업을 별개의 업종으로 구분 정의할 경우에는 동일지역내에 별도의 조합설립은 가능할 것임. |
| 3. 현행 축협법상 채란업과 육 계업을 동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와 같은 이유등으로 산란업과 육계업은 그 구조특성상 상이한 점이 많으며, 축산업의 전문화 추세등 제반여건 및 필요 |

업종으로 보
아 별도의 협
동조합 설치
가 불가능할
시는 채란 및
육계업의 별
개의 협동조
합을 조치할
수 있도록 축
협법 개정 건
의.

성을 감안하여, 추후 축산업협동조합법 개정시 이를 신중히 검토하겠음.

7월 부화·종계분과위원회 개최



▲ 부화·종계분과위원회

부화·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신흥종)가 지난 7월6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사료협회 김치영 과장을 초청하여 국제곡물가격 전망 및 양계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받았다.

이어 장기적인 저난기로 인한 불황타개책에 대해 토론하여 불황의 원인을 과잉생산에 있다고 보고 생산량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생산량감축 세부실천계획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에서 확정된 생산량감축 세부실천계획을 차기 종계·부화분과위원회에 부의하여 최종검토후 확정하여 부화종계업자총회에 부의기로 결의하였다.

○부화·종계분과 전문위원 명단(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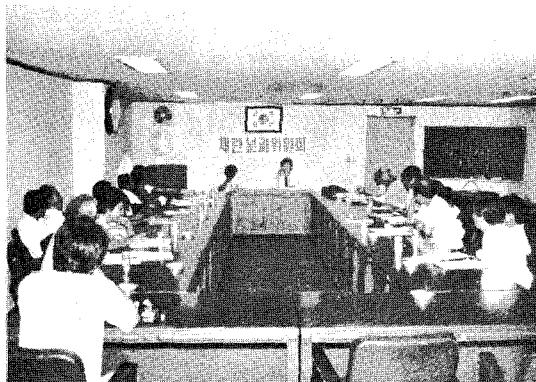
·원종계농장 : 신흥종, 이상윤, 배선재, 이계숙, 최병현,

박준영

·중부지역대표 : 이재식, 김영환, 이건일, 배성황, 김교석

·지부대표 : 전남, 전북, 경남, 경북지부 대표 각 1명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 7월 채란분과위원회

연평균 계란소비량이 가장 낮은 7월로 접어들어 그간 생산과잉으로 인한 장기간의 저난가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7월7일 오후2시 축산회관 지하회의실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심준식)가 열렸다.

계란가격고시제도 개선을 위해 6월15일부터 상인연합회측과 약정하여 시행에 들어간 생산자 가격과 도매가격 양분고시에 대하여 집중 논의가 있었는데 그간 고질적인 병폐로 지속돼온 후장기제도를 철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당분간 생산자들이 어려움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 제도를 정착시킬 때까지 협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당초 약정한 사항 일부를 변경해 상인연합회측과 논란의 쟁점이 되었던 본회와 현대양계사의 가격변동 유선통보를 일체 중단시키기로 하였다.

본회의에 앞서 강사로 초빙된 사료협회 김치영 조사과장은 금년 배합사료 가격전망에서 최근 미국의 콘벨트지역이 이상 가뭄으로 인해 사료곡물생산량이 30~40% 감산이 예상되어 국내 축산업에 어두운 그림자가 몰려오고 있다고 했다.

배합사료원료 수입의존도가 72~85%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는 실제 타곡종으로의 전환에 어려워 미국의 한발이 계속될 경우 국내 정부정책을 개선한다 해도 20~30% 원가 상승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최근 동향에 있어 8%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판매기피현상을 보이고 있어 점차 배합사료가격 인상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부화·종계분과 소위원회 개최

부화업계의 불황·타개책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부화·종계분과 소위원회가 지난 7월14일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전문위원 13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불황의 원인을 생산과잉이므로 생산조절이 불황타개를 위해 선결해야 될 문제점이라 하였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화업자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같이 하여 강력한 부화업자만의 단체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불황타개책을 모색하는 방안이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통계자료를 구할 수 있는 단체의 필요성에 대한 원칙론에 합의한 후 계속 모임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88년 제7차 편집위원회 개최



▲ 편집위원회 광경

'88년 제7차 편집위원회가 지난 7월14일 오후2시 대한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임병규 위원장을 비롯하여 4명의 편집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7월호에 대한 평가와 검토가 있은 후 현재 양축가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사료가격과 사료원료인 대두박 가격인상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의하였으며 「고가사료 시대를 맞게 될 양계산업의 재조명」에 대한 죄담회를 개최, 계재하기로 했다.

7월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민기)가 지난 7월27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육계가격의 원인을 분석전망하고, 최근 병아리값이 오르면서 종계가 높고 있는데에 우려를 하면서 육계업자들의 대처방안을 토론하였다.

한편 날로 수가 증가하고 있는 소개소의 문제에 대해 육계업은 병아리의 구입과 출하가 연중 지속성이 없어 부화장이나 상인과 직거래는 어렵다고 보아 소개소는 육계업에 있어서 필요

한 존재라 인식하면서 문제는 소개소가 적정수 보다 너무 많아 소개소끼리의 경쟁으로 인해 육계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필 요약이라 규정하였다.

앞으로는 육계업자가 소개소를 전전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유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양계산업 대처방안 좌담회 개최 —한발로 인해 곡물가격 폭등해—

본지는 최근 미국곡물생산지역에 한발피해로 인하여 곡물가 격이 급등함에 따라 배합사료가격이 인상되고 있어 양계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양축가 들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지난 7월20일(화) 오후 2시 본회 회의실에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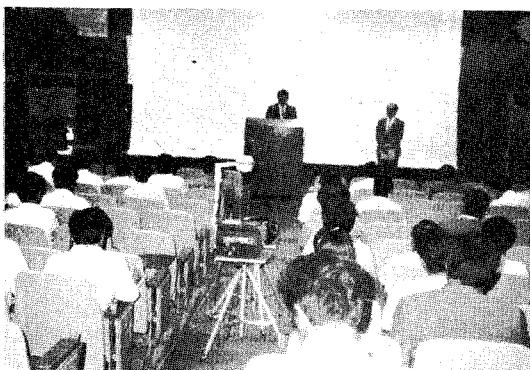
이날 좌담회에는 김동수(옥성서비스상사대표), 김정인(신촌사료 전무), 박홍석(전북대교수, ASA기술개발실장), 이동명(덕일농장 농장장), 장민기(본회 부회장, 벼들농원대표)씨가 참석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본문 34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이천육계분회 월례회 개최

본회 이천육계분회(분회장 성창규)는 지난 7월2일 오전 11시 분회 회의실에서 회원의 친목 및 정보교환을 위한 7월 정기월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실에서는 6월 육계분과위원회 개최결과보고에 이어 복경기전망 및 국제곡물가격인상에 따른 사료값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대처방법에 대하여 집중 논의했고 금후부 터라도 입추를 자체하기로 했다.

양계질병방제 세미나 개최 —수의과학연구소 주최 본회 후원으로—



▲서울대에서 열린 양계 세미나

지난 7월 23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설 수의과학연구소(소장 박용복)주최, 대한양계협회 후원으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학동강의실에서 양계질병방제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양계의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 되는 집단위생에 관한 내용을 다룬 이번 세미나에서 일본 북해도대학 이다구라 교수는 널리 알려지지 않으면서 최근에 문제되는 레오바이러스성건초염, 닭 빈혈인자 감염증, 요석증, 복수증 등 닭질병에 관한 강연에 서 아직은 질병의 발병기전을 밝히는 단계이지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될 질병이라고 발표하였다.

서울대학교 김선중교수는 산란계·종계에 있어서 산란율이나 수정율을 저하시키는 뉴 캇슬, 마이코프라즈마병 등에 관하여 발표하였고, 가축위생연구소 김재형연구관은 변이형 마렉병과 육계에서의 마렉병 백신접종에 관한 발표에서 마렉병 예방에 대해서는 백신에만 완전히 의존하는 것은 금물이며 양계장의 위생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마니육종의 오경록전무는 사육환경과 사료위생 문제에서 닭고기의 위생적인 생산은 도계장 및 가공공장 뿐 아니라 종계장, 부화장, 사료공장의 오염정도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계산업과 관련되는 전분야의 위생과 연관되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조리사 보수교육 종료 —경기도 지역 3,843명 참석—



▲경기도 지역 조리사 보수교육

경기도 전지역의 식품점업체 및 단체급식소 조리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지난 5월3일부터 7월5일까지 실시되었다.

본 교육은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 국조리사협회에서 주관하였으며 이에 본회는 닭고기·계란 우수성 강의와 요리강습회를 본회 홍보담당 직원이 직접 출강해

실시하였다.

30개 시·군에서 3,843명이 참석한 본 교육은 대상층이 조리사 또는 접객업소 경영주, 주방조리 책임자로서 소비촉진홍보에 좋은 기회였다.(관련기사 146 page)

계란우수성 책자 제작·배부 —“계란의 비밀” 20,000부 제작—

본회는 장기간에 걸친 계란가격 저조를 회복하고자 각종 방법(매스컴, 세미나, 회의시 생산조절 당부 등)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계란 소비홍보사업의 일환으로 계란 우수성에 대한 책자를 20,000부 제작해 배부중에 있다.

본 책자에는 계란의 영양적·경제적 우수성과 함께 요리법도 게재되어 있는 4×6배판 크기로 기존에 있던 책자의 내용을 표1,2,4만 수정하였다.

계란 소비촉진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 홍보실(778-8103,4)로 연락하면 제공이 가능하다.

닭고기요리 책자 제작·배부 —닭고기요리 솜씨대회 입상작품—

제2,3회 전국 닭고기요리 솜씨대회에서 입상한 요리 중 새로운 요리로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대중성 있는 요리를 중심으로 책자를 제작했다.

지금까지 만들어 오던 형식의 책자에서 벗어나 「계단식 제본」이란 형태의 새로운 책자를 30,000부(32절 크기) 제작했으며 전국으로 배부중에 있다.

소비자간담회 결과 대부분의 주부들이 기존의 알려진 요리보다는 새로운 닭고기 요리에 대한 요리책을 더 선호한다는 요구에 부응해 제작된 것이다.

소비자 그룹 간담회 2회 개최 —주부, 여교사 대상—

본회는 양계산물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기호를 올바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홍보사업을 실시코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룹 간담회를 지난 7월15일, 30일에 걸쳐 2회 실시했다.

1회에는 7세 이상의 자녀를 둔 30대 주부 7명을, 2회에는 7세 이상된 자녀를 둔 국민학교 여교사를 참석시켰다.

닭고기·계란의 위생상태에 대한 견해, 요리에 대한 전반적

인 기호상태, 영양가에 대한 인식도 및 본회 홍보사업에 대한 이해정도 등을 들었다.

앞으로도 대상층을 바꿔가며 그룹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홍보사업에 대한 모니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성월간지에 닭고기 홍보 —가정조선 8월호—

각종 제품들이 지나치리 만큼 광고(홍보)를 하는 것은 소비촉진을 위한 것이며 또한 현시점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양계산물은 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TV, 라디오 등 고가의 홍보는 엄두도 못내고 있으며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가정조선(조선일보사 발행) 8월호에 피부과 전문의 강진수씨의 원고(닭고기 우수성)를 본문 중 2페이지, 칼라 1페이지에는 닭고기 광고(전단으로 활용했던 내용)를 게재했다.

양계산물 우수성 DM 2,500부 발송 —양계산물 소비캠페인 광고에 응한 전국의 소비자—

(주)미원 사료사업본부에서는 「양계산물소비캠페인」을 각종 주요 일간신문 지상을 통해 실시하였다.

광고의 하단을 이용해 「광고를 보신 신문명과 주소를 적어 보내 주시면 달걀·닭고기에 대한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해 본회로 엽서를 보낸 전국의 2,500여 소비자에게 본회에서 제작한 홍보물 4종과 (주)미원의 요리책자를 발송했다.

본회에서 (주)미원에 감사패 전달



▲ 정태원회장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양계산업 불황을 극복하고자 (주)미원에서는 6대 일간지와 주간지 지상을 통해 소비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전국의 소비자로 하여금 그 우수성을 널리 인식케 하는데 기여한것에 대해 본회 정태원회장은 7월28일 전국 양계인의 이름으로 (주)미원 김채방사장에게 지난 7월28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주)미원 김채방 사장과 인터뷰 가져

일간지에 양계산물 소비홍보 캠페인 광고를 게재하여 크게 기여한 (주)미원 김채방 사장과 지난 7월21일 오전 11시에 축산업계 발전에 대한 견해를 직접 듣고 본지에 게재하기 위해 인터뷰를 가졌다.

계란 소비홍보 캠페인 실시 —경북지부 주최, 7월21일~25일—



▲경북지부 주관 달걀소비 홍보 캠페인

계란의 생산과잉 및 불합리한 유통 등으로 계란값이 장기간에 걸쳐 생산비에 크게 밀도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그 자체로 소비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지난 7월21일과 25일 경북지부 및 대구지역 계란 상인대표(난친회) 주최로 대구시내 대단위 APT지역 10곳에서 주부의 왕래가 많은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계란 우수성 홍보물 배포와 함께 염가판매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차량 10대를 동원해 현수막을 걸고 홍보물을 배포하며 시내 카페레이드(Car Parade)도 벌였다. 조동필지부장은 TV생방송에 출연해 소비자들이 계란을 더 많이 먹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김상조경북도지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도내 각 시·군 공직자들도 의무적 계란1판이상 소비키로 하는 한편 각 기관단체의 구내식당에서도 계란관련 요리를 많이 해서 내놓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각종 매스컴도 적극 협조해

KBS, MBC, 대구매일신문 뿐만 아니라 서울신문 등 중앙일간지에도 계란소비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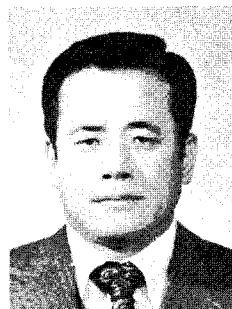
이번 행사로 계란 우수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방학과 장마 등으로 체화되었던 물량을 소진 함으로써 난가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한 난친회 회원은 다음과 같다.

남명환(미환상사), 정찬도(경도축산), 홍인식(신덕상사), 문상경(금호농장), 이세우(산격상회), 김근식(하양상회), 송기홍(제일금호농장), 김영준(동성계란), 이영도(정화농장), 안기섭(미현상회)

양계산업 불황으로 홍보협찬금 저조

—작년보다 3,700여만원 낮아—



김길원 사장

본회는 '88역점 사업으로 양계산물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양계인 및 유관업계·단체의 협조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에는 양계산업의 불황으로 인해 홍보협찬금 모금이 매우 어려워 7월 25일 현재 70,750,000원이 접수되어 작년 7월의 107,199,600원 보다 무려 36,449천원이 적다. 금년 목표액은 1억5천만원으로 현재까지 약 47%에 달한다. 이달 중에는 한국바이엘화학(주)(대표 김길원)에서 2백만원을 협찬하였다.

축산관련제도·법규·정책 건의서 제출

—축산관련 9개 단체 공동제출—

본회를 위시하여 축산관련 8개 단체가 공동으로 지난 7월23일 각 정당·몇 감사원장에게 축산관련제도와 법규 및 정책 개선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화시대에 양축농민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높여야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였는데 건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황

1. 사료곡물을 비롯한 원료사료의 가격폭등으로 배합사료가격이 크게 인상되고 축산물 가격은 하락하여 현재 양축농민의 어려움이 극심함

○ 국내유통 배합사료가격 변동현황

'88.7월 8~9% 인상, '88.12월 10%이상 인상 예정

○ 축산물 가격동향

| 축종 | 생산비 | 농장출하가격 | 비고 |
|-----|---------|---------|-------|
| 소 | 1,500천원 | 1,394천원 | 400kg |
| 돼지 | 120천원 | 105천원 | 90kg |
| 닭고기 | 950원 | 800원 | kg당 |
| 계란 | 470원 | 285원 | 대란10개 |

2. 축산물 수입개방(통조림, 칠면조육 등)에 따라 양축농가의 어려움이 극심함

○ 돼지고기 통조림 수입현황('87.7.1. 수입자유화)

| | | 전년대비(%) |
|-----------|------|---------|
| '87. | 566톤 | 159% |
| '88.1.~5월 | 461톤 | 43% |

○ 유당(HS 1702) 카제인(HS 3501)등 낙농제품의 관세율 인하 및 수입감시품목체제의 해제방침('89부터) 등으로 수입대체에 따른 낙농업의 기반 붕괴우려 및 낙농가의 심한 반발과 심각한 농촌문제 우려

3.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양축농가의 집단행동으로 사회불안

4.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기반 조성과 정부지원 미흡으로 경쟁국과 대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없음.

대책건의

1. 축산원자재 수입관세 면세

○ 사료곡물,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농가사료용 재배종자(옥수수, 호박, 연맥, 유채)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을 개정하여 수입관세를 면세하여 영세한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의 경우 원료사료 수입관세가 무세임

○ 농가의 주요 소득작목인 축산물(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등) 및 축산가공제품(소세지, 햄, 베이컨, 유당, 카제인 등)의 수입관세는 양축농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현행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수입감시품목체제의 계속적인 유지를 하여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내유통 축산원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세

○ 국내에서 유통되는 사료,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등 축사원자재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양축농민이 생산비로 흡수하고 있어 생산비 인상요

인이 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농기계의 예에 서처럼 축산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축산물의 수입개방에 앞서 생산비절감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두박의 수입자유화 및 배합사료용 대맥수입

○ 급변하는 국제원료사료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생산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배합사료의 원가절감으로 외화절감 및 농가소득을 위해 수입제한 품목으로 묶여있는 대두박의 수입자유화를 조속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 수입원료의 경제적인 품목의 선택과 최저비배합의 원리에 입각한 배합사료의 생산공급은 사료업계의 당면과제임. 따라서 정책과제로 제시된 원료의 다양화 정책을 적극화 한다는 면에서 식량정책 차원의 입장에서 제한하고 있는 배합사료용 대맥수입은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축산물 수출지원

축산중 증산능력과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수출전략 상품으로 지정개발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공급과잉으로 인한 축산물 가격폭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 수출안정기금설치 및 지원

○ 수출금융지원과 저장가공처리자금 융자

○ 성장국과 동등한 수출장려금 지원

○ 수출용 생축의 도축세 면세

○ 축산폐수 배출 및 정화시설 자금의 장기 저리융자 및 일정율의 보조금 지원

○ 육가공 공장의 수출전용 도축장·병설 인·허가 완화

5. 국산우수수 인수사용에 따른 차액보전

국산우수수 인수사용에 따른 배합사료의 원가상승 압력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수입가격과 국내산가격과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이중가격제를 채택함으로써 축산농가만이 과중하게 부담하는 불균형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계란공판장 설치 및 육계계열화 생산·적극추진 천의

○ 서울을 농수산물 도매시장내에 계란의 수급 및 가격안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공판장 설치 운영을 건의합니다.

○ 육계산업 구조개선을 위하여 계열화 생산(인터넷크레이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알팔파의 수입자유화 품목으로의 전환

알팔파는 실수요자의 희망에 불구하고 대미무역흑자 해소책의 일환으로 일정량의 한도를 책정 수입하고 있는 바, 현재의 가격수준상 경제성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지정, 실수요자의 판단에 따라 수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미국의 대한수입물량 확대 압력을 회피하는 방책이므로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년 종계수입 추천현황

| 추천일 | 농장명 | 성명 | 품종 | 추 천 | | | 금액총액(\$) | 용도 |
|---------|--------|-----|-----------|--------|-------|--------|----------|----------|
| | | | | 우 | 송 | 계 | | |
| 88.1.24 | 중원농장 | 배선채 | 인디안리버 | 4,500 | 450 | 4,950 | 7,425 | 육용P.S |
| " | " | " | " | 5,000 | 500 | 5,500 | 8,250 | " |
| 1.29 | 신기농장 | 이상윤 | 피터슨 | 0 | 4,000 | 4,000 | 12,343 | " |
| 1.30 | 복지농원 | 박수남 | 로만L.S.L | 4,500 | 500 | 5,000 | 25,000 | 산란P.S |
| " | " | " | 로만갈색 | 3,200 | 300 | 3,500 | 7,500 | " |
| " | " | " | 로만 | 1,350 | 150 | 1,500 | 3,000 | 육용P.S |
| 2.4 | 고창양계 | 신흥종 | 데칼브와렌 | 1,680 | 230 | 1,910 | 77,831 | 산란G.P.S |
| 2.19 | 봉명부화장 | 차상진 | 로만L.S.L | 6,000 | 600 | 6,600 | 27,000 | 산란P.S |
| 2.26 | 복지농원 | 박수남 | 로만 | 8,500 | 1,500 | 10,000 | 15,500 | 육용P.S |
| 3.17 | " | " | " | 9,500 | 500 | 10,000 | 15,500 | " |
| 3.28 | 중원농장 | 배선채 | 인디안리버 | 5,000 | 500 | 5,500 | 8,750 | " |
| " | " | " | " | " | " | " | " | " |
| 4.11 | 고창양계 | 신흥종 | 데칼브사-XL링크 | 15,000 | 1,500 | 16,500 | 65,465 | 산란P.S |
| 4.27 | 봉명부화장 | 차상진 | 로만L.S.L | 2,000 | 200 | 2,200 | 6,000 | " |
| 5.19 | 신기농장 | 이상윤 | 피터슨 | 1,600 | 320 | 1,920 | 41,309 | 육용G.P.S |
| " | " | " | 하바드 | 6,000 | 1,000 | 7,000 | 85,698 | " |
| 6.1 | 한일원종농원 | 최병현 | 아바에이커 | 9,100 | 4,900 | 14,000 | 175,170 | " |
| 6.22 | 한일농원 | " | 이사브라운 | 30,000 | 3,600 | 33,600 | 120,000 | 산란P.S |
| 7.9 | 한협종계장 | 박준영 | 로스브라운 | 5,824 | 728 | 6,552 | 12,620 | " |
| " | " | " | 로스 | 3,900 | 1,605 | 5,505 | 78,752 | 육용 G.P.S |

과음하면 암에 걸린다?

술을 많이 마시거나 자주 마시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또 마음놓고 먹어온 땅콩도 어느 지역 산인가에 따라 암의 발생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과학자들은 일부 발암물질이 자연적인 상태로 존재하는데 좌안, 자연상태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물중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 연구해 오고 있는데, 제너럴 모터스(GM) 암연

구재단이 주최한 심포지움에서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발암 인자가 적어도 인공물에 포함된 발암물질 만큼이나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대자연은 발암물질을 만드는 반면 암을 방지하는 물질도 스스로 만드는것 같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커피는 암과 무관할지도 모른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